

‘촘촘한 주거돌봄’ 광주도시공사, 공기업 위상 높다

노후 임대주택 그린리모델링 사업...누적 1915세대 개선

국토부 장관 표창 이어 대한민국 ESG 경영대상 영예도

광주도시공사가 노후 공공임대주택 그린리모델링 사업 등을 통해 주거환경 개선, 도시재생 친환경 경 탄소중립 도시 조성에 기여하는 등 지역 대표 공기업의 위상을 높여가고 있다.

3일 광주도시공사에 따르면 1989년부터 공급한 광주시 공공임대주택 중 상당수가 준공 30년을 넘어서면서 단열재·난방시스템 성능저하 등 심각한 시설 노후화를 겪고 있다. 특히 에너지 효율 저하에 따른 냉·난방 유지 비용 등이 높아짐에 따라 가뜩이나 영세한 입주민들에게 큰 경제적 부담까지 주고 있다.

이에 따라 광주도시공사는 2021년부터 기존 건축물의 단열과 설비를 개선해 에너지 효율성을 높이고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그린리모델링 사업을 적극 추진 중이다. 이 사업은 녹색제품 등 친환경 자재 사용을 통해 탄소중립을 실천하고, 입주민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 환경 제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도시공사는 특히 그린리모델링 사업으로 민선 8기 광주시장 표창 중 하나인 ‘주거권 보장을 통한 삶의 질 향상’ 실천에도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그린리모델링 사업의 핵심은 건물 밖 열 손실이나 유입을 감소하는 단열성능 강화, 건물 내 계획되지 않은 기류를 최소화하는 기밀성능 개선, 고 효율 LED조명·보일러 설치, 친환경 마감재를 사

용한 가구 배치 등이다.

그린리모델링 사업 이후 에너지 성능 평가를 실시한 결과, 최소 30.2%에서 최고 45.5%의 에너지 절감을 달성했으며 에너지효율등급도 최대 1++ 등급을 획득하는 성과를 내고 있다는 게 공사의 설명이다.

광주도시공사는 그린리모델링 사업 첫해인 2021년 우산빛여울채 665세대의 그린리모델링을 모두 완료했으며, 2022년에는 지역 대표 노후 공공임대주택단지인 상촌, 우산, 금호 등 총 750세대, 2023년에는 500세대의 그린리모델링 사업을 마무리했다.

사업 시행 3년만에 총 1915세대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성과를 낸 것으로, 올해 250세대와 내년 130세대도 추가로 그린리모델링을 할 예정이다.

이 같은 광주도시공사의 그린리모델링 사업은 단순한 노후 건물 리모델링을 넘어 ‘따뜻하고 촘촘한 돌봄도시’ 구현의 시정 철학이 담겨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더욱 크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도시공사는 그린리모델링 사업 혜택을 받은 입주민 중 대다수가 흠뻑 어르신과 장애인 등 취약계층이라는 점을 고려해 거주지 리모델링과 함께 리모델링 사업 기간 퇴·입주 등 다양한 추가 지원에도 정성을 쏟고 있다.

도시공사는 실제 주거안전을 위해 세대복도 창문 등에 방범창을 무상 설치하고, 현장에 민원처

리 전문인력(코디네이터)도 배치해 취약계층 주민을 돕고 있다. 특히 코디네이터들은 그린리모델링 신청 세대의 선호 등·호와 단지역건을 꼼꼼히 반영해 이주계획을 수립하는 등 주민친화적 활동으로, 주민의 행정 만족도 등을 크게 높이고 있다.

도시공사는 또 주민설명회를 열어 입주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육실 리모델링 줄눈 재시공, 이주 예정 세대 사전점검 등 요구사항을 그린리모델링 사업에 지속적으로 반영하고 있다.

광주도시공사는 노후 공공임대주택 입주민을 위한 다양한 ESG 경영 실천 사업 등을 통해 사회적 관심과 도움이 절실한 취약계층 주민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녹이는 역할도 성실히 수행하고 있다.

도시공사는 실제 공공임대주택 입주민을 대상으로 매년 복날 삼계탕 등을 선물하고 있으며, 올해는 폭염 속 여름나기를 돕기 위해 차렵이불과 양파죽 등을 전달하기도 했다. 또 입주민의 정서 안정을 위해 힐링 원에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등 공공임대주택 입주민을 위한 ESG 경영을 이어가고 있다.

광주도시공사는 이 같은 ESG 경영 실천을 인정받아 2022년 12월 국토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으며, 올해는 지난달 정부포상인 ‘대한민국 ESG 경영대상’을 수상하는 영예도 안았다.

배운식 광주도시공사 사업본부장은 “그린리모델링 사업은 단순한 건축물 개선을 넘어 지속가능한 도시를 만드는 중요한 발걸음으로 자리 잡고 있다”면서 “앞으로 사업을 더 확대하고, 더 많은 시민이 더 나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 범위를 넓혀 가겠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강기정 광주시장이 지난 2일 동구 광주AI창업캠프에서 광주시-AI유치기업 업무협약을 체결한 뒤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광주시 제공)

AI기업들 ‘AI 실증도시’ 광주에 등지

광주시, AI 8개 기업과 협약 AI 기술개발·사업화 추진 등

데이터·금융·도사·콘텐츠 등 다양한 분야의 인공지능(AI) 기업들이 ‘인공지능(AI) 실증도시 광주’로 물러오고 있다.

광주시는 지난 2일 동구 AI창업캠프에서 파인디씨피에프브이㈜, 파인엔파트너스자산운용(주), ㈜그린다에이아이, ㈜리버트리, ㈜모션어드바이저, ㈜에핀, ㈜투엔티닷, ㈜티엔케이에이아이 등 데이터·금융·도사·콘텐츠 분야의 인공지능(AI) 기업 8개사와 215-222번째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주요 협약 내용은 ▲광주 인공지능(AI) 전문분야 생태계 조성 위한 기술개발·사업화 추진 및 기술·정책 자문 수행 ▲인공지능(AI) 전문분야 인재 육성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광주법인 또는 지역사무소 설립 ▲인공지능(AI)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다양한 기업 지원 프로그램 개발·운영 및 기업 홍보 ▲인공지능(AI) 분야 전문인력 교육 및 취업 프로그램 기획·추진 등이다.

협약식에는 강기정 시장을 비롯한 김규태 파인디씨피에프브이(주) 대표이사, 김창호 파인엔파트너스자산운용(주) 대표이사, 강호진 ㈜그린다에이아이 대표이사, 조아름·유재승 ㈜리버트리 대표이사, 박성호 ㈜모션어드바이저 대표이사, 전영미 ㈜에핀 대표이사, 김하영 ㈜투엔티닷 대표이사, 박희수 ㈜티엔케이에이아이 대표이사 등이 참석했다.

협약에 따라 광주연구개발특구 점단3지구인 장성군 남면에 구축 예정인 40MW 규모 파인데이터 센터 개발사인 파인디씨피에프브이(주), 파인엔파트너스자산운용(주) 등 2개 기업은 광주 인공지능(AI) 산업과 AI데이터 센터 활성화에 적극 협력하고, 지역 인공지능 기업의 비즈니스 연속성을 위

한 상호 지원하는 협력체계도 구축하기로 했다. 특히 파인데이터센터는 국내 최초로 AI와 연계한 민간 데이터센터로 건립될 예정으로, AI업계의 기대를 한 몸에 받고 있다.

나머지 6개 협약기업들도 광주에 법인 또는 지역사무소를 설립하고, 인공지능(AI) 전문분야 기술 개발과 사업화를 비롯한 광주형 인공지능(AI) 산업 생태계 조성에 협력하고, 전문인력 양성 등 신규 일자리 창출도 기여할 계획이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많은 기업이 광주에 온 덕분에 ‘인공지능(AI) 대표도시 광주’ 실현에 큰 힘을 얻는다”며 “인공지능산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AX실증밸리 사업인 AI 2단계 사업이 빠른 속도를 내고 있다. 더욱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강 시장은 이날 협약식과 함께 광주에서 활동 중인 인공지능(AI) 기업 대표들과 도시락 오찬을 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는 자리도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는 박현정 ㈜블루캡 대표이사, 정지성 ㈜에스오에스랩 대표이사, 함민혁 ㈜센데이터 대표이사, 김용혁 ㈜페르소나에이아이 광주지사장, 유연수 ㈜픽픽 대표이사, 오상진 인공지능(AI)사업단장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그동안 광주에서 인공지능 비즈니스를 통해 AI기업이 성장할 수 있었던 노하우를 공유하고, 기업 지원방안 등을 논의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광주일보 72년
호남 최대 부수
열독률 호남 1위

카자흐·우즈벡서 ‘뷰티 광주’ 알렸다

광주시 해외시장개척단

수출상담 182건·2266달러 성과

광주시와 지역 중소기업들이 중앙아시아에서 ‘뷰티 광주’의 매력을 알리고, 수출 판로를 개척하는 성과를 냈다.

광주시 해외시장개척단은 “지난 23-28일까지 카자흐스탄(알마티), 우즈베키스탄(타슈켄트)에서 수출상담회를 열고 수출상담 182건·2266만달러, 양해각서(MOU) 12건·65만달러를 체결했다”고 3일 밝혔다.

광주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지역 중소기업 등이 참여한 광주시 해외시장개척단은 현지 바이어와의 1대1 수출상담회를 통한 지역 중소기업의 수출거래선 모색, 중앙아시아 시장진출 네트워크 구축 등을 목적으로 구성됐다.

개척단에는 ㈜태봉, ㈜원솔루션, 거성테크, ㈜제이투원, 아이엔비티, ㈜비비룩스, 에프아이티, 노보인터내셔널, 라피네제이, ㈜에스엠부레 등 미용뷰티, 생활소비재 수출 지역 중소기업 10개사가 참여했으며, 수출상담 현장에서 광주중소기업 제품

의 우수성 등을 홍보하고 수출 판로를 개척했다.

개척단은 화장품, 미용기기, 방역용 소독기 등 미용뷰티, 생활소비재 품목에서 수출상담 182건 2266만달러, 양해각서(MOU) 12건 65만달러를 계약하는 성과를 냈다.

특히 기초화장품을 제조하는 에프아이티 기업은 카자흐스탄 13만달러, 우즈베키스탄 810만달러의 수출상담을 이끌어내 가장 높은 상담액을 달성했으며, 미용기기 제조업체 ㈜비비룩스는 카자흐스탄 79만달러, 우즈베키스탄 710만달러를 상담했다.

전일승 라피네제이 대표는 “이번 중앙아시아 시장개척단을 통해 중앙아시아 시장의 이해와 상품의 경쟁력을 확인해 해외마케팅 전략을 세우는데 의미있는 시간이었”이라며 “가시적인 수출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사후관리와 제품개발에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주재희 광주시 경제창업국장은 “경제와 인구 측면에서 잠재력이 큰 중앙아시아에 광주시의 중소기업들이 진출할 수 있도록 다양한 수출지원 사업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무안서 항저우로 여행 가볼까

무안공항, 수·일 주 2회 운항

무안공항을 통해 항저우로 갈 수 있는 정기노선이 열렸다.

3일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 7월 열린 무안-항저우 간 정기노선 취항을 위한 업무협약에 따라 지난 2일부터 주 2회(수·일) 운항한다.

앞서, 전남도는 2일 무안공항 국제선 입국장에서 항저우-무안공항 간 정기노선 취항 환영 행사를 개최했다.

항저우에서 입국한 중국 관광객들은 장성 백양사, 담양 죽녹원, 순천 낙안읍성, 여수 해상케이블카 등 관광지를 둘러볼 예정이다.

전남을 방문하는 중국 단체관광객을 위해 A&T에서는 세계관광문화대전 특화상품인 3박4일, 4박5일 상품을 출시했다.

전남도는 또 중국 개별여행객을 대상으로 중국어 가이드가 동행하는 자유여행 기획상품인 ‘글로벌 남도한바퀴’를 시범운영할 계획이다.

무안-항저우 간 항공권은 플라이무안(flymuan.com), 트립닷컴 등 온라인 플랫폼에서 개별적으로 구입이 가능하다. /*김지을 기자 dok2000@

영광 YEONGGWANG E-MOBILITY EXPO

e-모빌리티 엑스포

2024.10.17.(목) - 10.20.(일)

영광지식산업센터 일원(대마산단)

주최

개막식 축하공연

2024. 10. 17.(목) 15:00 - 16:30

대마산단 일원 엑스포 특별무대

환영사, 주제영상, 축하공연

할인판매 행사 BLACKDAY

e-모빌리티

상품권기자, 오토바이, 전기자전거

특별한 세일을 마음껏 즐겨보세요!

최대 10.17.(목)~10.20.(일) 10:00~17:00

30~50%할인

매일매일 쏟아지는 경품 대잔치!

10.17.(목)~10.19.(토) 16:30~17:00

10.20.(일) 15:30~16:00

로봇공연 드론체험

10.17.(목)~10.20.(일) 10:00~17:00

미래인재 과학축전

메이커 페스티벌-경춘광량

10.17.(목)~10.20.(일) 10:00~17:00

블랙(글)스 매거진

10.18.(금) 16:00~16:30(30분간)

e-모빌리티 시승체험

10.17.(목)~10.20.(일) 10:00~17:00